

건군기(建軍期) 한국군 교육훈련 체제 형성과정 연구

金 源 垈*

1. 머 리 말
2. 해방 후 한국군 교육훈련 환경 분석
3. 건군기 군 교육훈련 체제 분석
4. 건군기 군 교육훈련 사례 분석
5. 맺 음 말

1. 머 리 말

군대는 조직화된 폭력을 합법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사회의 군사적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체이다. 국민군의 성격을 지닌 현대의 군대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국가의 주권과 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¹⁾ 이러한 중대

한 역할수행을 성공적으로 보장해주는 조직적 활동이 바로 교육훈련이다. 즉 군 교육훈련은 국가방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 요소인 전투력의 운영과 개발, 발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²⁾

현재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그리고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래전의 양상은 과거 재래전과는 달리 전장공간이 광역화되어지고 작전시간의 동시화 및 군사과학의 첨단화가 더욱 극명한 형태로 발전되어져갈 전망이다.³⁾

최근 국방부는 21세기 첨단 미래전에 대비, 싸워 이길 수 있는 군 육성을 위해 군 구조 및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 2020 등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국방부 교육 담당부서에서는 국방교육정책서, 국방교육훈련령 제정 등, 교육훈련 분야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점에 한국군 초기 군 교육훈련 체제를 분석해보는 과정은 우리 군의 정체성과 미래 지향적 군 교육훈련 방향설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해 출발하였다.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공식적인 국가기관으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전에도 무장조직의 형태나 성격은 다르지만 군의 실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이는 달리 말하면, 국군의 형성이 정부수립 이후에 비로소 진행된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정부수립에 앞서 이미 현실적인 국가 방위체로 조직되었음을 의미한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1945년부터 1950년 6·25전쟁 직전까지의 기간은 국가기구로서 군사력 건설 및 운용을 위한 제반 조직, 성격, 규모 등을 구

(New York: Macmillan Co., 1974), p. 205; 백종천 외, 『한국의 군대와 사회』(나남출판, 1994), p. 13에서 재인용.

2) 국방부, 『國防白書』, 2006, p. 104.

3) 국방부, 『國防 教育訓練 指針』, 2008, p. 4.

4) 국방부,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11.

*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육군중령

1) Kurt Lang, "The Militar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10

축해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창군'이라는 표현보다 '건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특히 건군 50주년을 맞아 간행된 『건군 50년사』에서도 시기 구분에 있어 1945~1950년을 건군기(建軍期)라고 확정하고 있다.⁵⁾

본 연구에서 건군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지금의 한국군 교육훈련 체제가 바로 이 시기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군사제도와 교육훈련 체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교육훈련 발전과정, 즉 어떻게 태동·출범하여, 어떠한 전개·정착·발전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현재와 미래의 군사력 건설과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미 군정기와 미 군사고문단 체제하에서 외세 의존적 군사제도 및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⁶⁾ 물론 전승의 요인이 전쟁 이전에 수행된 군사적 교육훈련의 결과이었는데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한국군 교육훈련은 초기 군사제도 형성과 함께 나름대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진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군 교육훈련의 역사적, 정신적 의의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건군 초기의 군 교육훈련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초로 한국군 건군기에 대해 다룬 역사 자료로는 6·25전쟁 직후인 1954년도 국방부가 발행한 『국방부사』가 있다. 뒤이어 1년 뒤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육군발전사』도 있다. 그밖에 『국방정책변천사』 등의 다양한 역사자료⁷⁾가 있지만 이러한 자료의 대부분은 주로 군 조직의 편성, 건군

5) 국방군사연구소, 『建軍 50年史』, 1998, p. 15; 국방부, 『국방정책변천사』, 1995, p. 2.

6) 국방부, 『국방정책변천사』, 군사연구소, 1995, p. 9.

7) 건군기 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공간사의 종류: ① 국방부-『국방부사』 제1집, 1954; 『한국전쟁사』 Ⅰ, 1967; 『국방사』 Ⅰ, 1984. ② 육군-『육군발전사』, 1955; 『육군발전사』 상권, 1970; 『창군전사』, 1980. ③ 해군-『대한민국해군사』 제1집(행정편), 1954; 『해군

및 창군기의 군사제도에 관한 편년체적 기술 자료가 대부분이며, 건군기의 교육훈련 체제 형성과정을 분석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군 교육훈련과 관련한 자료 중에는 최병욱의 「군 교육훈련 체제의 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⁸⁾라는 논문과 박효선의 「해방후 창군기 군 평생교육 경향분석」⁹⁾이라는 논문이 있다. 그러나 이 두 논문 역시 군 교육훈련 발전과정을 유형별로 분석하거나 군에서의 평생학습에 관한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을 뿐 건군기 군 교육훈련 체제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 건군 초기 한국군 교육훈련 체제 형성과정의 집중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 중점과 내용을 설정·수행하였다.

첫째, 건군기 한국군 교육훈련의 태동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군 교육훈련의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실제 야전에 적용된 교육훈련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행된 건군 50년사에 의하면 한국군의 발전과정을 크게 다음의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즉 ① 건군기(1945~1950) ② 전쟁 및 전후 정비기(1950~1961) ③ 국방체제 정립기(1961~1972), ④ 자주국방 기반조성기(1972~1980) ⑤ 자주국방 강화기(1981~1990) ⑥ 국방태세 발전기(1991~현재)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건군기만을 집중분석하되 편의상 미 군정 체제기(1945. 8~1948. 8)와 미 군사고문단 체

편제사』 제1권, 1970. ④ 공군-『공군발전사』 제1권, 1954; 『공군사』 제1집, 1962; 『공군사』 제1집 증보판, 1991. ⑤ 해병대-『해병대발전사』, 1961.

8) 최병욱, 박사학위 논문 「軍 教育訓練體制的 模型에 관한 探索的 研究」, 2002.

9) 박효선, 「해방후 창군기 한국군 평생교육 경향분석」, 평생교육학연구 제13권, No. 4, 2007, pp. 123-148.

제기(1948. 9~1950. 6)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¹⁰⁾

연구방법은 초기 건군기 한국군의 형성과정을 다룬 다양한 국내외 문헌과 교육훈련 관련자료, 국방부에 소장되어 있는 1차 사료들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사례분석을 위해 초기 간부양성의 핵심기관인 조선경비사관학교(지금의 육군사관학교)와 경비대 초기 창설부대인 ○○연대의 관련 자료를 집중 분석하였다. 또한 문헌적 근거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보강하였다.

2. 해방 후 한국군 교육훈련 환경 분석

건군기 한국군 교육훈련 체제 형성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당시 군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친 시대적 환경을 정치·경제·기술·이념 측면으로 구분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1) 정치적 환경

미 군정이 남한에 진주한 직후 미 국무성은 미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D. McArthur)를 통해 하지(J. Hodge)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미군을 보조하는 비정규군 성격의 경찰예비대(Police Reserve Force) 창설을 지시했다. 그러나 군정장관 하지는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가 한국 국민 정서에 반하며, 그로 인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향후 대한민국 독립국가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부터 정규군 성격의 조선국방군(육·해·공군 및 해안경비대) 창설을 건의하였

10) 국방군사연구소, 『建軍 50年史』, 1998, pp. 8-12.

다. 그러나 미 국무성은 소련의 비우호적인 반응을 우려해 이를 기각하였고 결국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뱀부플랜(Bamboo Plan)이라고 하는 2만 5천 명의 경찰예비대 성격의 국방경비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방경비대는 국내 치안을 위한 시설 보호 및 소요 진압작전 임무수행이라는 명목상의 임무는 주어졌지만 실제 미 군정 통제하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훈련 시행지시는 거의 없었다.¹¹⁾ 결국 미 군정 초기에 창설된 국방경비대는 미국 정부와 주한 미군사령부 사이에서의 한국군 성격규명에 대한 시각 불일치로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이로 인해 미 군정은 명확한 교육훈련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각 부대의 교육훈련은 과거 군 경험이 있는 지휘관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추진되거나 일본군식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건군 초기 군 교육훈련을 이끌었던 각 부대 지휘관들은 대부분 국내·외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거나 사설군사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요원들이었다. 이렇게 해방 이후 건군과정에 참여한 대표적인 군 인적자원 계열로는 일본육사 출신 간부를 비롯, 만주군, 학병, 지원병, 중국군·광복군 출신 간부 등이 있었다.¹²⁾ 실제 미 군정의 하지(J. Hodge) 장관과 실무를 담당했던 Ago 대령 등은 사설군사단체들이 약간만 훈련받으면 군대의 핵심요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 군정법령 28호 3조에 의해 해산시켜야 할 사설군사단체들을 경비대에 참여토록 종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해방 이후 자숙해야 할 입장에 있었던 일본군 출신 간부들이 오히려 광복군을 제치고 대거 건군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¹³⁾

11) 허장, 「초기 군사제도와 군부의 구조형성」, 『韓國現代史』, 열음사, 1984, p. 394.

12) 일본 육사 출신 간부로는 이응준, 유승렬, 안병범, 신태영, 김석원, 백홍석 등이며, 만주군 출신 간부로는 정일권, 김백일, 원용덕, 박정희, 백선엽 등이 있었고, 학도병 출신 간부로는 민기식, 김계원, 김종오, 박병관, 백인엽, 김익열 등이 있었으며, 지원병 출신 간부로는 최병린, 함병선, 송요찬, 임충식, 임부택 등이 있었다. 또한 중국군·광복군 출신 간부로는 이일태, 김홍일, 권준, 조개욱, 전성호 등이 있었다.

13)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p. 29.

일본육사 출신 장교들이 건군 과정에 가장 많이 발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질면에서 정규 사관학교의 높은 군사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해방 직전까지의 군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군사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인적자원이라고 미 군정이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를 잘 나타내 주는 사례가 <표 1>의 건군 초기 군사영어학교 임관자 중 일본육사 출신 또는 일본군 간부 현황이다. 군번 1~10까지 인원 중에서 6명이 과거 일본군 출신이며 이들 일본군 출신 장교의 대거 군 수뇌부 포진은 이후 한국군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일본군 출신 경력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일본군식 교육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후 미 군사고문단 기에는 미군 철수에 따른 공백과 정규군 확장에 필요한 소요를 메우기 위해 교육훈련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MTP 7-1 프로그램¹⁴⁾을 적용한 통일된 미국군식 교육훈련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건군기 한국군의 교육훈련은 미국군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외세 의존적 형태하에,

<표 1> 군사영어학교 임관자 중 군번 1~10번 장교 현황¹⁵⁾

군번	성명	경력	최종계급/직책	군번	성명	경력	최종계급/직책
1	이형근	日陸 56	대장/참모총장	6	양국진	滿軍 대위	중장/군단장
2	채병덕	日陸 49	중장/참모총장	7	문이점	滿軍 대위	.
3	유재홍	日陸 55	중장/참모총장	8	김홍준	滿軍 대위	대위/대대장
4	장석륜	日陸 27	대령/연대장	9	이영돈	日해군중위	대령/연대장
5	정일권	日陸 55	대장/합참의장	10	최주종	滿軍 중위	소장/군수사령관

출처 : 한용원, 『창군』, p. 75 재정리.

14) MTP 7-1(U.S. Army's Mobilization Training Program)은 1943년 9월, 미국에서 작성된 동원훈련계획으로 개인 및 중대훈련 위주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15) <표 1>은 영어학교 출신 중 군번 1번에서 10번까지의 임관자로 모두 미 군정에서 군 경력을 인정받는 일본육사 및 만주군 출신 장교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군 고위직에 진출하였다. :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p. 51.

형식면에서는 미국군식을, 내용면에서는 일본군식의 교육방법을 유지하는 특이한 구조로 발전되었다. 또한 과거 군경력을 가진 군 인적자원들은 미 군정이 명확한 교육훈련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군 경험을 기초로 자체적인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2) 경제적 환경

일제 강점기를 막 벗어난 한국 사회는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 해방 직후 남북한 GNP는 겨우 67달러 수준이었으며, 남한은 초기 군사력 건설을 위한 장비나 시설, 기타 물품들을 미 군정을 통해 지원받았다.

미 군사고문단 체제기에는 미군 철수에 따른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49년 제81차 미 의회에서 통과된 공법 제329호 상호방위지원 조항에 따라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가 시작되었다. 1950년도 미 회계연도의 대외 군사원조 총액 13억 달러 가운데 한국에 대한 원조 분은 1천만 달러였다. 그러나 이 정도 재원으로는 1950년 초 이미 10만에 육박하는 한국군 병력에 대한 장비와 무기, 각종 부속품 정비 등의 부족 소요를 메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과 미 군사고문단 측은 압박한 북한의 남침징후 등을 들어 미국 정부에 군사원조 확대를 강하게 요청하였으나 미국 정부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

당시 미국의 對韓 군사원조 정책은 한국군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모가 아닌 단지 38선 수호를 위한 국내 방위군 정도를 육성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전차 및 155밀리 곡사포 및 기타 중장비에 대한 군사원조는 계획안에서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주한미군고문단 참모들이 남한의 지형상 도로나 교량이 협소하여 전차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조언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력증강을 빌미로 북진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발언이 보

다 적극적인 군사원조를 제한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북한군은 후방침투와 방해공작으로 국군의 정규전에 대비한 전력증강 계획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군은 1948~1950년 사이에 국방 예비비 가운데 80~90%를 후방지역 공비토벌을 위한 비용으로 할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국은 1950년 1월 26일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였으나 체결 후에도 미국의 대한 원조는 전쟁 직전까지 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¹⁶⁾ 결국 철군에 따른 미국의 한국방위 지원은 육군 병력 65,000명을 기준으로 한 소요장비 및 소수의 해군함정과 수리부속에 그쳤다. 그나마 상당 부분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양하는 장비로 대체하였으며 북진 우려 때문에 공격용 무기 대신 노후장비를 제공하고서도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⁷⁾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군기에 자체 충당 가능한 예산의 제한은 물론, 미국의 군사원조 역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축소되어 교육훈련에 필요한 필수

<표 2> 주한미군 철수시 이양한 군사장비 현황

무 기	탄 약	무 기	탄 약
M-1소총	56,000정	로켓포	8,884문
M-1칼빈	49,000정	바주카포	150문
기관총(기관단총 포함)	2,000정	수류탄	295,000발
권총	7,000정	지뢰	50,000발
105밀리 곡사포	91문	장갑차	19대
60밀리, 81밀리 박격포	700문	트럭	5,000대
57밀리, 37밀리 무반동총	173정	함정	79척

자료: The Conflict in Korea: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재인용.

16) 건군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pp. 280-281.

17) 허장, 「초기 군사제도와 군부의 구조형성」, 『韓國現代史』, 열음사, 1984, p. 178.

장비나 교보재 등의 구입 및 활용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3) 기술적 환경

한국군이 기술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48년 8월 24일 「한·미 잠정 군사협정」 체결과 주한 미 군사고문사절단 산하에 임시군사고문단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협정서에 명시된 대로 미 군사고문단에 의해 한국군에 대한 조직·훈련 및 무장이 강화되면서 부대 중·창설과 함께 미제 기관총이나 박격포(60밀리 및 81밀리), 대전차포(57밀리) 및 M-3 곡사포(105밀리) 등의 장비가 이양됨에 따라 동시에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훈련방법이 전수되었다.

특히 1949년 5~6월 사이에는 미 군사고문단장인 로버트(William Robert) 준장이 직접 한국군 교육훈련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군의 기술분야와 군수분야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군사원조의 실효를 거둘 수 없으며, 부대 훈련 수준 불균형으로 부대 간 합동작전이 곤란하다는 지적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군사학교를 설치할 것을 역설했다.¹⁸⁾ 이에 따라 기술관련 병과학교인 공병, 병기, 병참, 자동차학교 등이 창설되어 기술분야 교육이 한 단계 강화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당시 미 군사고문관들은 원활한 훈련지도 임무수행을 위해 「고문단지침서(Office of the Chief Advisor's Handbook)」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해·공군은 비교적 빠르게 기술력이 증대되었는데 이는 광복 전부터 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던 인적자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으로 출발한 해군은 해사대 출신의 손원일·정공모 등이 중

18)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p. 173.

심이 되어 건군작업에 착수하였다. 손원일은 중국과 독일에서 항해학을 익히고 귀국한 인사였고, 정공모는 일본에서 일등 기관사로 활약하다가 귀국한 해양인이었다.

해안경비대는 미 고문단 요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군 기술화를 추진하였다. 1946년 9월 15일 미 해군으로부터 최초로 상륙정(LCI) 2척을 인수함과 동시에 진해, 인천 및 목호기지에서 디젤함과 증기함 수척을 인수하여 본격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¹⁹⁾ 또한 1948년까지 상륙정 외에도 유조선(YO-1)과 소해정(JMS 및 YMS) 등 모두 36척의 군함이 미군으로부터 이관되었다.

3군 중 시기적으로는 가장 뒤늦게 출발하였으면서도 단기간에 급속히 발전을 이룬 군이 공군이다. 공군은 광복 전부터 국내·외 항공계에 종사하던 항공인들이 뜻을 모아 「한국항공건설협회」²⁰⁾를 만들고 1946년 9월 공군 창설 의지를 통위부에 최초로 피력한 이후 1949년 10월 1일 공군으로 독립하였다. 미 군정은 미군 철수에 따른 장비이양에 대비하여 대구(제1훈련학교), 서울(제2훈련학교) 및 진해(제3훈련학교)의 3개소에 기술관련 학교를 세웠다.

또한 미 군사고문관들은 자국의 선진 군사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미 육군부에 건의하여 한국군 장교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사단에 배치시켜 실무를 익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한국군 장교는 주일 미군 사단에 배치되어 미군의 행정, 교육, 훈련, 지휘, 통솔 등의 절차를 참관한 후, 이를 한국군 사단에 전파하였다. 4개월로 편성된 제1차 실무 교육단은 총 33명으로, 1950년 4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당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8군 예하의 제1기병사단(東京),

19) Training of Korean Coast Guard by United States Coast Guard Personnel, ENCLOSURE "B"(July 2, 1947): 주한 미 군사고문단 문서(KMAG), p. 207.
 20) 한국항공건설협회: 조선항공기술연맹, 중앙항공연구소, 조선학생항공연맹 대표자 및 관계자들이 1946년 7월 26일 아서원에 모여 최용덕을 위원장으로 항공단체 통합 준비위원회를 기반으로 개설한 단체임.

제7사단(仙臺), 제25사단(大阪), 제24사단(福岡) 등에 분산 배속되어 각 병과의 실무경험을 쌓고 귀국하여 각부대의 업무능률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국군의 군사 기술력은 미 군정하에서의 인력확충 우선 정책이 일단락되고 미군 철수가 예상되는 시점에 미 군사고문단이 한국군 교육훈련에 적극 개입하면서 발전 속도가 빨라졌다. 특히 실무교육단의 단기연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은 당시로서 신무기체계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또한 해·공군은 육군에 비해 짧은 창설 역사 속에서도 기술 성장속도가 오히려 빨랐는데 이는 과거 군 경력을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결과였다.

(4) 이념적 환경

건군 초기부터 사설군사단체로 활동하던 조직들은 각각 이념적 색채를 유지한 채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에 애썼다(〈표 3〉 참조). 특히 좌익

<표 3> 해방 이후 사설군사단체 및 좌·우파 현황

단 체 명	대 표	설 치 일
조선임시군사위원회	이응준(우)	1945. 8월 말
조선학병동맹	왕익권(좌)	1945. 9. 1
학 병 단	안동준(우)	1945. 12. 16
조선국군준비대	이혁기(좌)	1945. 8. 17
대한국군준비위원회	유동열(우)	1945. 11. 1
대한민국군사후원회	조성환(우)	1945. 11. 1
대한무관학교	김 구(우)	1945. 11월
중앙육군사관학교	김원봉(좌)	1946. 1. 10
육군사관학교	오정방(좌)	1946. 11. 1
육·해·공군 출신 동지회	이청천(우)	1947. 11월

자료: 1) 資料 大韓民國史 1, 2권, 2) 한국전비사, 3) 秘錄軍

세력은 건군 초기부터 남한 내에 우익 중심의 정권이 단독으로 수립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해활동을 부단히 전개하였다.

반면 건군 초 경비대를 국내치안 유지를 위한 부대 정도로 생각한 미 군정은 경비대에 대한 확고한 이념적 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²¹⁾ 그리하여 경비대 창설시 선발인원에 대한 명확한 신원조사 및 사상적 배경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1948년 제주도 4·3사건 및 10월 9일 여·순 사건 등의 이념적 갈등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군에 대한 이념적·정치적 장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하에 제주도 4·3사건 진압을 위한 경비대 투입은 내부반란을 야기하였다.²²⁾ 이 사건은 미 군정에 큰 충격을 주었고, 우익의 정권장악과 더불어 군 내부의 숙청 및 사상적 장악과 정치적 교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²³⁾

좌·우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확대되는 사회적·군 내부적 혼란은 미군 철수가 임박함에 따라 더욱 증대되어 갔고 군정 체제로부터 미 군사고문단 체제로 확대되어갔다. 이에 정부수립과 함께 조직된 국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초대 국방부장관인 이범석은 1948년 12월 1일 전 국군 장병이 준수해야 할 군의 정신적 지표인 '국군 3대 선서'를 제정하여 전파하였다. 그리고 이를 부대 단위별로 일조·일석점호와 각종 행사시 제창하도록 하였다. 국군 3대 선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1949년에 국군맹세로 개칭되어 사용되었다.²⁴⁾

국군 3대 선서(國軍三大宣誓)

1. 우리는 선열의 혈적을 따라 죽음으로서 민족과 국가를 지키자.

21) 허장, 「초기 군사제도와 군부의 구조형성」, 『韓國現代史』, 열음사, 1984, p. 408.
 22) 제주 4·3사건: 제주에 주둔한 11연대의 40~100명이 반란을 일으킨 뒤 도주하여 무기와 경찰서를 습격하고 게릴라에 합세하는 사건이 발생.
 23) 허장, 「초기 군사제도와 군부의 구조형성」, 『韓國現代史』, 열음사, 1984, p. 409.
 24) 국군맹서는 1957년 12월 1일 국방부 훈령 제28호로 군인의 길로 제정되어 계승되었다. 그 후 1973년 8월 30일 제167호로 개정되었고, 다시 1976년 5월 4일 군인의 길을 간결하게 다듬도록 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개정되어 「군인의 길」이 공포되었다.

2. 우리의 상관, 우리의 전우를 공산당이 죽인 것을 명기하자.
3. 우리 군인은 강철같이 단결하여 군기를 엄수하여 국군의 사명을 다하자.

이러한 제반 강령서는 역사성·사상성·군인정신을 명백하게 표방하여 장병의 국가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국군의 기본정신을 항일 독립투쟁 정신과 애국사상, 반공정신으로 체계화하여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일조하였다.²⁵⁾

한편 남북간 군사관계는 1949년 전반기를 넘어서면서 더욱 악화되어 좌익의 후방지역 게릴라 활동은 더욱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정규군으로 편성된 8개 사단 중 절반에 가까운 3개 사단(제3, 제5, 제7사단)이 후방지역 작전에 투입되었다. 또한 나머지 사단도 38도선상에서의 잦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경계부대로 투입됨에 따라 한국군은 건군 초기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²⁶⁾ 결국 이 시기의 이념문제는 건군 초기 교육훈련을 통해 군의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불필요한 노력의 낭비로 한국군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군 장병들에게 있어 사상무장과 확고한 이념적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3. 건군기 군 교육훈련 체제 분석

건군기 한국군 교육훈련 체제 형성과정을 보다 밀도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당시 군 교육훈련 체제 구성 요소를 교육통제 체제·교육운영·교육지원 측면으로 구분하여 주로 교육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5) 백기인, 「건국직후(1948~1950) 국방정책의 형성과 그 성격」, 『軍史』 제46호(2002. 8), p. 186.
 26) 군사편찬위원회, 『資料』 12, pp. 710-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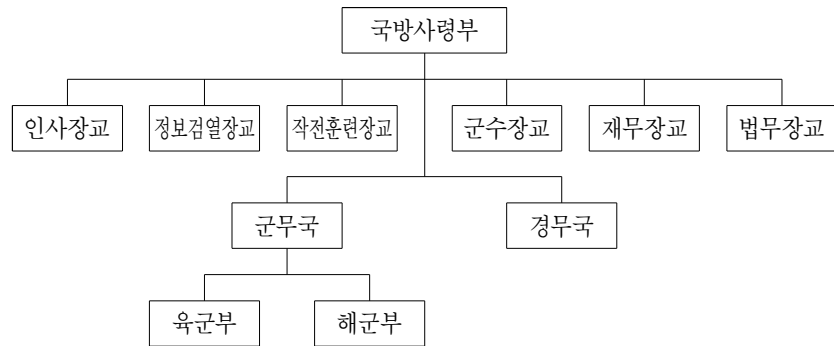
(1) 교육훈련 통제체제

교육훈련 통제체제면에서는 교육관련 조직 및 편성, 관련법령 및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 군정하에서 최초로 군 교육훈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행사한 문건은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장관 아놀드 육군소장에 의해 작성되어 시달된 군정법령 제28호이다.

이 문건에는 국방사령부의 창설목적과 함께 한국군 통제에 대한 미 군정의 통제권한 및 범위 내에 한국군의 모병·조직·훈련·장비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표 4>에서 나타나 있듯이 미 군정은 최초 국방사령부를 편성함에 있어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령부 직속으로 작전훈련장교를 편성,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군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로 군 조직 확장을 위한 모병업무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훈련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또한 경비대의 정체성 모호 및 미 군정의 교육정책 부재로 실제 통제기능은 매우 미약했다. 이후 미 군사고문단 체제로 전환되면서 미군 철수로 인한 전투력 공백이 예상되자 한국군에

<표 4> 국방사령부 편성 (1945. 12. 1일 현재)



자료 : 국방부, 『국방사』; 건군사.

대한 교육훈련 문제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국군조직법에 의해 경비대가 육군으로, 해방병단이 해군으로 개편되자 육군은 작전참모부장 밑에 작전교육국을, 해군은 참모부장 밑에 인사교육국을 두어 교육훈련 업무를 관장케 하였다.

이와 함께 1948년 8월 2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하지 군정장관 사이에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주한미군 철수 시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훈련과 무장을 담당함과 동시에 한국군 운용의 전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추진체로 미 군사 임시고문단(Provisional Military Advisors Group in Korea: PMAG)이 조직되었으며 이는 미군 철수가 완료된 1949년 7월 1일, 주한 미 군사고문단(Military Advisors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으로 정식 발족되어 임시고문단의 업무를 계승하였다.

미 군사고문단은 1949년 4월~6월 사이 한국군 교육훈련 수준을 전면 진단하였다. 그 결과 한국군의 교육훈련 수준이 과도하게 저조함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부대에서 활동 중인 전 고문관을 소집하여 CPX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한국군 부대에 전파하도록 하였다.²⁷⁾ 미 군사고문단은 또한 국군의 각급 지휘관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대역제도(Counterpart System)를 운영하였다.²⁸⁾ 이는 고문관 1명씩을 각급 부대에 배치하여 지휘관과 집무를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문제를 토의하고 조언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군식 교육훈련이 점차 미국군식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육군은 1950년 1월 「교육각서 제1호」를 하달하여 8개 사단의 육군 부대는 분대전술로부터 시작하여 대대전술 훈련을 실시하여 그해 3월까지 마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각서의 내용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

27)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p. 173.

28) Robert K. Sawyer, op. cit., pp. 50-58.

였다. 뒤이어 그 해 3월 14일 「교육각서 제2호」를 하달하였다. 이는 6월 1일까지 대대훈련을 완료하고 9월까지의 연대훈련을 완료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6월 15일에 가서야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3개 연대와 제7사단 2개 연대, 제8사단의 1개 대대만이 대대훈련을 마쳤을 뿐이었다. 결국 이러한 교육각서는 6·25전쟁 발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그러나 미 군정기와는 달리 중앙부서에서 명확한 교육목표를 제시하여 예하 부대를 효과적으로 통제·감독하고자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발전적 측면을 엿볼 수 있다. 반면 미군 철수로 인한 전투력 공백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정치·사회적 현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2) 교육훈련 운영체제

1) 양성교육

건군 초기에는 군사력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인력의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양성교육기관이 급속히 팽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요 양성교육기관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주요기관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5> 건군기 양성교육기관 현황

학 교 명	창 설 일	창설위치
군사영어학교	1945. 12. 5	서대문
조선경비사관학교	1946. 5. 1	태릉
해군병학교	1946. 1. 17	진해
해군특별교육대	1948. 6. 29	진해
공군사관학교	1949. 1. 14	김포
간호장교 후보생교육대	1948. 8. 26	용산
호국군 간부학교	1949. 3. 4	용산
여자배속장교훈련학교	1949. 5. 19	을지로
청년방위간부훈련학교	1949. 12. 1	온양
여자항공교육대	1949. 2. 15	김포

① 군사영어학교 : 1945년 12월 5일 서대문구 냉천동 소재 지금의 서울 감리신학교 자리에 설치된 최초의 장교 양성기관이며, 영어 교육 이외에 국사, 참모사, 제식훈련, 소총분해 등을 가르친 것으로 보아 군사영어학교가 단지 통역요원 양성만이 아닌 건군의 초석이 될 장교를 양성시키는 양성교육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조선경비사관학교 : 군사영어학교가 폐교된 뒤 급증하는 경비대 간부요원의 양성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1946년 5월 1일 경기도 태릉에 설치되었다. 교육체계가 잡히지 않은 초창기에는 제식훈련, 분·소대전술, 99식 및 38식 소총의 기계훈련이 주를 이루었으며 제식훈련은 미국군식으로, 전술·화기훈련 및 내무생활은 일본군식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③ 해군병학교 : 해군의 장교양성을 위해 1946년 1월 17일 진해에서 창설되었으며, 6월 15일 해안경비대사관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47년 8월 14일 실시된 대학령에 의해 해사대학(海士大學)으로 불리기도 했다.²⁹⁾ 학교 창설 초기 군사교육은 기술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본래 교육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었지만, 장교양성의 시급함을 감안, 3기생까지는 교육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여 배출하였다.

④ 특별교육대 : 1948년 6월 29일 사관학교 출신만으로는 충원이 부족했던 해안경비대 실전 경험이 있는 하사관을 선발하여 사관후보생 교육을 실시하고자 특별교육대(特別教育隊)가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병조장(兵曹長)으로서 병과장교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설치하였으나 점차 진일보하여 특과장교를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발전되었다.³⁰⁾

⑤ 공군사관학교 : 공군 장교를 양성하는 항공사관학교가 1949년 1월 14일 김포에 육군항공사관학교로 창설되었다. 항공사관학교는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공군사관학교로 개칭

29) 이렇게 명칭이 자주 변경되었던 것은 국가적인 교육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군 교육체제 또한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 『建軍史』, 2002, p. 358.

30)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행정편), 전사편찬감실, 1956, pp. 58-60.

되었다. 공군사관학교의 학제는 1949년 6월 10일 입교한 제1기(83명)는 2년제, 1951년 11월 10일 입교한 제3기(136명)는 3년제 그리고 1952년 이후 입교생부터는 4년제를 적용하였다.

⑥ 간호장교 후보생교육대 : 1948년 8월 26일 간호장교 1기생의 임관을 시작으로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5개기 총 120명이 배출되었으며, 창설된 육군 군의학교의 간호후보생 교육대에서 각각 1개월의 군사교육을 받고 임관하였다.

⑦ 호국군 간부학교 :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한 상황에서 병력증강의 시급한 문제를 풀기 위해 1949년 3월 4일 창설하였다. 전투 예비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주거지에 생활하면서 필요한 군사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한국의 현대적인 예비군 제도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다.³¹⁾

⑧ 여자배속장교 훈련학교 : 1949년 6월 건국 후 학원가의 소요와 혼란이 심화된 상황에서 당시 중등학교 이상 체육교사들로 교련교사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 육사에 소집시켜 시행했던 교육으로 이들을 배속장교라고 칭하였다.³²⁾ 배속장교 중 제3기 배속장교 후보생은 여자들로 편성되어 이들은 육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을지로 6가에 위치한 서울사범대학(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들은 3주간(5. 19~6. 9)에 걸쳐 주로 사상 위주의 정신교육을 받았다.

⑨ 청년방위간부학교 :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공포되고 호국군이 해체되는 대신 1950년 1월 초 청년방위대가 창설되었다. 청년방위대는 국내에 난립하는 제 청년단체를 통합,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병역법 제77조에 의거, 군사훈련을 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1949년 12월 1일에는 청년방위간부훈련학교가 충남 온양에 설치되어 본격적인 간부양성 교육을 추진하려고 준비할 무렵, 6·25전쟁을 맞아 해산되고 말았다.

⑩ 여자항공교육대 : 1949년 2월 15일 육군 항공부대의 예하부대로 김포

에 창설되었다. 여자항공대원들은 항공병으로 여자항공교육대에 입대한 다음 2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각 기술분야(조종, 정비, 통신, 기상)에 대한 이론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남자와 동일한 복장·급식·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여성이 항공부문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최초의 시험대 역할을 하였다.³³⁾

건군 초기의 양성교육의 특징은 경비대 확장 및 미군 철수에 대비 전투력 공백을 해결하기위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군 초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일시에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교육의 질적 문제는 다소 미약한 경향을 보였다.

2) 보수교육

군사력 건설을 위한 양성교육기관은 미 군정기에도 급속히 팽창했던 반면 보수교육기관의 발전 속도는 다소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건군 초기 미 군정의 경비대 정책이 인력확보 및 기초적인 군인화 과정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 군정 초기에는 언어상의 문제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교관, 교육 내용, 교육지원 여건 등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초기 군사영어학교 졸업자들의 활동과 국외 군사교육 및 유학 장교들이 확대되면서 점차 개선되었다. 미 군사고문단기에는 상당수의 보수교육기관이 창설되었는데 주요 보수교육기관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주요 기관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군사영어학교 출신 간부 보수교육 : 미 군정 당국의 공식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지침이나 계획이 없어 각 부대가 임의적이고 독자적인 계획에 의거, 교육훈련을 실시하자 조선경비대 총사령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946년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경비사관학교에 군사영어 출신자를 소집하여 참모학생교육이란 명목으로 위관급 보수교육을 실시하였

31) 국방부, 『건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257.

32)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30년사』, pp. 112-113.

33) 공군본부, 『공군 25년사 1948~1972』, p. 15.

다. 이 교육은 경비사관학교 제1기생 교육과목과 같은 통일된 미식 구령에 의한 미국 군대식 훈련이었다. 교육훈련의 통일을 목적으로 각 부대에 근무하는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을 소집하여 실시한 이 교육은 한국군 최초의 보수교육이었다.

② 육군 병과학교: 정부수립 전후 각군 병과 창설과 함께 각 특기별 보충교육을 수행할 교육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미 군정과 미 군사고문단 주도 하에 육군의 경우 총 12개의 병과학교를 창설하였다.

육군 병과학교 중 가장 먼저 설치된 학교는 통신학교였다. 통신은 군 조직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이기에 때문에 1946년 6월 15일 국방경비대에 가장 먼저 통신과와 통신소를 설치하는 동시에 1947년 1월 20일 경남 진해시 해안경비대 기지 내에 조선경비대 통신교육대를 설치하였다(〈표 6〉 참조).³⁴⁾

통신학교에 이어 1947년 7월 20일 지금의 헌병학교에 해당하는 군기학교가 창설되었으며, 그밖에 기술병과인 병기, 공병학교 등이 창설되었다.

육군은 특히 대부분의 고급지휘관이나 참모들이 과거의 군사경력 이외에는 교육을 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지휘관은 참모운용을, 참모들은 지휘관

<표 6> 육군의 보수교육(병과학교) 현황

학 교 명	창 설 일	창설위치	학 교 명	창 설 일	창설위치
육군 통신학교	1947. 1. 20	진 해	육군 참모학교	1949. 7. 1	용 산
육군 군기학교	1947. 7. 20	수 색	육군 보병학교	1948. 2. 21	수 색
육군 병기학교	1948. 10. 5	부 평	육군 군의학교	1949. 8. 15	부 평
육군 공병학교	1948. 11. 25	김 포	육군 경리학교	1949. 10. 15	용 산
육군 군악학교	1949. 5. 1	장충동	육군 병참학교	1949. 10. 15	용 산
육군 정보학교	1949. 5. 20	수 색	육군 포병학교	1949. 10. 25	용 산

자료: 『建軍 50年史』, p. 48.

34) 국방부, 『국방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4, p. 216.

보좌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육군은 고급 지휘관과 사단급 이상의 참모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1949년 7월 1일 참모학교를 창설, 단기간에 많은 지휘관과 참모를 교육 배출시킬 수 있도록 8주 과정으로 운용하였다.³⁵⁾

③ 해군 항해교육대(航海教育隊): 특히 하사관교육을 위하여 1947년 9월 1일 항해교육대를 비롯한 기관, 공작, 통신, 위생, 경리, 표지 등 각 교육대를 학교로 승격시켰다. 당시까지 실시해오던 해군 하사관의 교육을 정비하여 기술 분야에 치중하는 것과 동시에 각 기능을 세분화시킨 것이었다. 그 후 1949년 11월 포술학교와 12월 신호학교가 증설되어 해군의 교육상황은 보다 향상되었다.³⁶⁾

육·해군에 비해 공군은 비교적 보수교육기관의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군 창설 자체가 3군 중 가장 늦게 이루어졌고, 장비 확보 등의 제한으로 별도의 학교기관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군의 보수교육은 주로 비행단 자체적으로 OJT 교육에 의해 실시되었다.

미 군정기에 양성교육기관에 비해 다소 부족했던 보수교육과정은 미 군사고문단 체제기로 전환되면서 점차 확대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군 철수를 대비 특기 및 병과소요를 충족하고 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미 군사고문단의 노력의 결과였다.

(3) 교육훈련 지원체제

건군 초기 교육훈련에 활용되었던 교재나 교범은 주로 미군의 것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미 군사고문단이 전군 차원의 교육훈련 향상을 위해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MTP 7-1(U.S. Army's Mobilization

35) 국방부,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348.

36) 전게서, p. 360.

Training Program)이다. MTP 7-1 프로그램은 1943년 9월, 미국에서 작성된 동원훈련계획으로 당시 확장추세에 있는 경비대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은 아니었다. 그마저도 38선 경계 및 공비토벌작전 투입 등으로 대부분의 부대가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였다.

또한 미 군사고문단은 한국군 장교들의 가장 큰 결함인 리더십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교육지원 사항을 포함, 기술 및 군수분야의 지식을 획기적으로 배양시키고자 Lewis D. Vieman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실시계획」³⁷⁾을 수립케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6·25전쟁 발발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건군 당시 다양한 군 경력자들의 기용으로 교관임무 수행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교육할 장비나 보조 재료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다. 당시 미 군정 및 군사고문단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이양받은 군사원조는 실 작전에 활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해·공군의 경우는 상태가 더욱 심각했다. 해군의 경우에는 창설 이후 보유한 함정이 대부분 소해정(掃海艇)으로 함정에는 포 장비가 없어 교육훈련을 할 수가 없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누차 미 국무부에 함정원조를 요청했지만 미 국무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1949년 6월, 해군은 장병과 부인회를 중심으로 「함정건조기금 각출위원회」를 결성하여 기금 조성 후 이를 정부에 헌납, 그 해 10월 17일에 미국으로부터 구잠함(驅潛艦) 1척을 구입했다. 해군은 이를 백두산호로 명명한 후 훈련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6·25전쟁 초기, 해군이 제해권을 수행하는데 기여하였다.

공군 역시 미국에 대해 지속적인 항공기 지원 요청³⁸⁾을 하였음에도 불

37) Lewis D. Vieman이 작성한 「학교교육실시계획」에는 한국군을 1952년 1월까지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① 기존 8개 병과학교의 질적 향상 및 시설, 인원보장 ② 육군사관학교 4년제 추진 ③ 각 병과학교의 고급과정설치 등을 추진하는 세부계획이 들어있다.

38)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미 제14공군사령관(슈놀트 장군)을 초청, F-51전폭기 25대를 포함한 99대의 항공기를 원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한국의 국내질서를 위해 그처럼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은 남북간 전면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해 불가하다”고 일축하였다.

구, 지원전망이 희박해지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항공기를 원조할 수 없다면 우리 손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정부·국회·언론기관을 통해 헌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총 3억 5천만원을 모금, 캐나다 정부로부터 T-6 훈련기 10대를 구입하였다.³⁹⁾ 건국기라고 명명받은 항공기 10대에 대한 명명식을 여의도 기지에서 거행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이 항공기 10대는 우리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모아 국방에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애국심을 표명한 것이니 남의 공군에 비하면 심히 미약하고 무력하다 할 것이나 수백만 명 동포들의 충심을 합해 뭉쳐놓은 것이니만큼 정신상으로는 남의 나라의 공군보다 더욱 유력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도입된 T-6 건국기는 6·25전쟁 당시 대전기지에 2대, 제주기지에 2대, 대구 동촌기지에 1대, 서울기지에 1대씩 배치되어 그나마 부족한 공군의 공군력을 메우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교육훈련의 생명은 실전과 같은 상황조성이다. 그런 면에서 교육훈련에 있어서 적절한 보조재료의 활용은 교육훈련의 질을 격상시키는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건군 초기의 교육지원여건, 즉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보조 장비 및 재료 등의 구비 상태는 매우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교육지원 수단이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관의 주도로서 민·관·군이 협력하여 교육훈련장비를 구입한 것은 외세 의존적 교육훈련 체제로부터 자주국방체제로 옮기는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39) 당시 항공기와 함께 0.5인치 기관총 20정, 실탄 5,000발, 1년분 부속품 3만 발 등 총30만 발 상당의 무기를 구매하였다.

4. 건군기 군 교육훈련 사례 분석

건군기 한국군 교육훈련 체제 형성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당시 초기 장교 양성기관이었던 조선경비사관학교 교육프로그램과 뱀부플랜에 의해 창설된 경비대 00 연대의 야외 기동훈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 경비사관학교 교육프로그램

교육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초창기에는 제식교련과 군수교육은 미국군식으로, 전술 및 화기훈련, 내무생활은 일본군식을 답습하였다.

교육이수 기간도 <표 7>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수별 1개월~6개월까지 일관성없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건군 과정에 요구되는 경비대 장교의 충원 수요를 신속히 해결하기위한 미 군정의 의도였다.

<표 7> 조선경비사관학교 1기~6기 현황

구 분	입 교 일	입교인원 (명)	교육기간	임 관 일	임관인원 (명)
제1기	1946. 5. 1	88	1개월	1946. 6. 15	40
제2기	1946. 9. 24	263	3개월(-)	1946. 12. 14	196
제3기	1947. 1. 13	338	3개월(+)	1947. 4. 19	296
제4기	1947. 5. 16	120	4개월(-)	1947. 9. 10	107
제5기	1947. 10. 23	400	6개월(-)	1948. 4. 6	380
제6기	1948. 5. 5	227	3개월(-)	1948. 7. 28	235

자료 : 『建軍 50年史』, p. 34.

전술과목에 있어서는 일본군의 「보병조전(步兵操典)」과 「작전요무령(作戰要務領)」과 같은 교재들이 그대로 사용되었다.⁴⁰⁾ 교과과정은 평균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무려 60여개 과목(<표 8> 참조)이 편성되어 군 경력이 없는 순수 민간요원들에게는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주었으리라 판단된다.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일본군식 일차려와 기합 등으로 1기생의 경우 88명의 입교인원 대비 40명이 임관하였으며, 2기생은 263명 중 196명만이 임관하는 등 중도에서 과정을 포기하는 인원들이 상당수 발생하였다(<표 7> 참조).

그런가 하면 <표 8> 현황에서처럼 대대공격·방어 전술훈련 등 과도하게 수준이 높은 과목까지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지금처럼 충분한 보수교육 과정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모든 군 관련 지식을 한꺼번에 경험시키려는 의도로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당시 건군 초기의 특징을 잘 반영해주는 과목으로 군제학, 군대위생학, 재정학 등이 편성되어 있다.⁴¹⁾

건군 초기 사관학교 교육은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경비대의 장교 충원소요를 해결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일본 및 미국 사관학교를 모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후보생들을 지도하는 훈육요원들 상당수가 과거 일본군, 만주군, 학도병 출신의 다양한 군 경력자들로 이루어져, 이들에 의해 각각 상이한 교육훈련 방식이 적용되는 문제도 있었다.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의 경우 직접적으로 생도들을 훈육하는 훈육장교(중대장·구대장) 중 상당수가 과거 일본군 경력을 보유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1중대장 박정희 대위(일육 57기), 제2구대장 황택림 대위(일육 59기),

40)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996, p. 67.

41) 군제학은 군사제도에 관한 기본이론을 익히고, 군대위생은 당시 기초위생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재정학은 지식인의 기본소양이라는 관점에서 각각 과정에 포함되었음.

<표 8> 사관후보생 교육훈련 프로그램(3개월 과정 기준)

과별	과 목	시간	과별	과목	시간
학 술 학	정신훈화	4	전 술 학	제식교련	24
	군대지휘법	4		깨스방어	4
	군대예절	8		체 조	8
	군제학	4		분열및의식	8
	교수법	4		장구및천막가설	4
	군대위생학	4		행정 및 숙영	8
	사격학	8		구급법	4
	독도법	8		축성작업	4
	행정학	4		철조망설치과피	4
	재정학	4		내무위병	4
	보급학	4		통신학	4
	군 법	4		폭동진압	4
	참모직능	8		총검술	16
	공격방어	8		전술각개교련	16
	포 병	8		진중근무	8
상황판단	8	분대공격	8		
작전일반명령	8	소대공격	8		
병 기 학	수류탄	4	중대공격	8	
	대인·대전차지뢰	4	대대공격	8	
	폭 파	4	분대방어	8	
	M1소총	24	소대방어	8	
	카빈소총	4	중대방어	8	
	자동소총	16	대대방어	8	
	경기관총	16	시가지전투	4	
	중기관총	8	하천전술	4	
	기관포	8	사격술	24	
	기관단총	8	종합훈련	8	
	권 총	4	검 열	10	
	로켓포	4	예 비	44	
	경박격포	24	※ 과 외		
	중박격포	8			
	대전차포	14	총 계	528	

자료 :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50년사』, p. 49.

2중대 2구대장 김학림 대위(일육 60기) 등이 일본군 출신이었으며 그 외에 김동빈 대위(학도병), 김희덕(학도병) 중위 등은 학도병 출신이었다. 결국 교육훈련 체계가 정립되지 못했던 초기 사관학교 내무생활 및 교육훈련은 이들의 과거 군 경험에 의해 일본군식 교육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지도하에 임관된 후보생들 역시 자신의 부대를 일본군식 교육방법으로 육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1949년부터 1년제 학제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생도 1기 때부터 미 군사고문단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즉 이때부터 주로 일본군식 교육 방법이 서서히 미국군식 교리로 통일되어가기 시작했으며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로 자리잡혀갔다. 일본군식 훈육 지휘체계, 특히 과도한 기합, 권위주의 리더십 등은 당시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으며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잔존하는 경향이 있다.⁴²⁾ 그러나 건군 초기 대한민국 국군을 이끌어갈 간성을 양성한다는 자부심이 다른 어떠한 교육기관보다 컸으며 근·현대사의 주역들을 양성해내는 산파역할을 담당했다.

(2) 경비대 ○○연대의 야외 기동훈련

미 군사고문단 체제가 이전의 경비대 교육훈련은 경비대 간부들의 과거 군경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⁴³⁾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연대의 교육훈련 사례를 들 수 있다. 제○○연대는 1947년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연대 예하부대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연대장 원용덕 대령은 장교특별교육 및 대대 진지공격을 거쳐 대대단위 야외 기동연습까지 추진하였다. 강릉에서 후포지역을 중심으로 1주일간 실시된 ○○연대의 훈

42) 최병순, 「가고 싶은 군대: 군의 리더십 도장화」, 국방대학교 학술세미나, 2006. 9. 27. p. 11.

43) Sawyer, R. K.,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2), p. 16; 『한국전쟁사』, p. 293, pp. 369-373.

련은 경비대 창설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훈련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⁴⁾

당시 연대장 원용덕 대령은 초기 군사영어학교 졸업자 중의 한사람으로 과거 만주군 출신의 군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연대작전 참모(대리) 박정희 소위 역시 만주 신정군관학교를 거쳐 일본 육사를 졸업한 군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상급부대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대부대 전술훈련을 자체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지휘관 및 참모가 모두 과거 군 경력이 있었으므로 독자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했다. 특히 연대 작전참모 대리 박정희 소위는 직접 기동야외연습 일정표 및 연습경과요도를 작성하였는데 일본식 작성방법에 영문표기를 첨가한 형태로 작성하였다.⁴⁵⁾

또한 박정희 소위는 연대 내의 장교특별교육을 직접 기획·담당하였는데 특별교육 내용은 각개전투, 수류탄, 분·소대전투훈련, 진중근무, 유격전 등이었다. 당시 이 교육을 직접 주관했던 박정희 소위는 본 훈련의 소감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훈련 내용과 수준 그리고 교육훈련 준비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의 일본군 경력에서 습득한 군사적 식견과 당시 일본군식 교육방법의 적용측면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박정희 소위가 작성한 훈련 소감문이다.

장교특별교육 실시 후 소감⁴⁶⁾

금번교육은 연대로서 최초로 실시한 장교교육이었던 만큼 그 효과나 성과의 다과편을 논할 것이 아니라 장차 장교교육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많이 얻었다는 점만으로도 대단한 의의가 있었다고 사료됨.

1. 사전준비

- 가. 교육실시 전 상당기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교육계획 및 기타 준비를 충분히 한 후 시작할 것.

44) 국방부, 『國防史』 Ⅰ, p. 219.

45) 당시 사용한 두 장의 요도는 경비대 당시의 국군의 훈련계획을 담고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국방부, 『건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341-343.

나. 교관은 1인이 전부를 담당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될 수 있으면 각 과목별(전술, 전투교련, 진중근무 등) 교관을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함.

다. 교육자재, 교육용 소모품을 충분히 준비하며, 이것을 지출하는데 인색하지 말 것. 금번 교육에 있어서 종이류 부족, 등사기 사용의 불가능으로 필요한 교재의 인쇄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한 듯한 느낌을 금할 수 없음.

2. 장소 및 시간 :

----- 중략 -----

3. 종합감 : 교육 시일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됨. 단시일간에 너무나 큰 성과는 과망이겠으나 소대전투 교련까지의 일반개념을 얻을 수 있었음을 인정함. 성과의 여부는 각자가 귀대 후 이것을 기초로 더욱 연구하여 실지에서 활용하고 연구하며, 실시하는 여부에 달려있음.

1947년 7월 28일 밤

박 정 희 소위

교육훈련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던 미 군정기에도 이와 같이 군 경력을 가진 지휘관 및 참모장교들에 의해 교육훈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 부대 지휘관의 군 경력이 그 부대의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건군기의 교육훈련 방식은 중앙 부서에서 시달된 통일된 교리에 의해서가 아닌 군 지휘관들의 출신 경력과 경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록 당시 군부를 형성하고 있는 인적자원들이 외세 의존적이기는 했지만 과거 군 경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적 경험요소가 충분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6) 당시 ○○연대 작전참모대리로 근무하던 박정희 소위(전 대통령)의 훈련소감문 내용을 재편집하였음 : 국방부, 『건군사』,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341.

5. 맺 음 말

지금까지 건군 당시 한국군 교육훈련 체제 형성과정을 시대적 환경과 체제적 관점, 그리고 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건군기 한국군 교육훈련은 해방 후 남한에 진주한 미 군정 당국에 의해 창설된 국방경비대를 조직하고 무장시키는 과정에서 태동되었다. 건군기 교육훈련을 크게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면 미 군정기와 미 군사고문단기로 구분할 수 있다. 미 군정기 교육훈련은 미국군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일본군식 교육방법이 적용된 외세 의존적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국방경비대의 정체성과 성격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군정청의 명확한 교육훈련의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아 과거 군 경력을 가진 군 인적자원에 의해 독자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미 군사고문단기에는 미군 철수로 인한 전투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투부대와 학교기관의 양적팽창과 함께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부대 자체적인 노력으로 추진되던 교육훈련이 미 군사고문단에 의한 중앙 통제식 교육훈련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훈련 통제 수단으로는 교육각서와 MTP7-1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상담역 제도를 통해 야전에 뿌리 내린 일본군식 교육 형태를 미국군식 교육훈련으로 개선시켜 나가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 군사고문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 요소로 인해 군 교육훈련의 효과성은 미흡하게 나타났다.

당시 한국군 교육훈련이 부진하게 추진된 이유를 시대적 환경 측면과 교육 체제적 관점에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①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중앙 부서로부터의 명확한 목표와 수준제시가 미흡했으며, ②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교

육훈련 전 과정에 대한 개발 및 투자가 부족했고, ③ 이념적, 군사적 충돌을 저지하기 위한 전투력 분산 등으로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체제적 관점에서는 ① 군 인력 확충에 우선하다 보니 교육훈련 전담조직 및 규정지원 등 기반체계 마련이 다소 미흡했고, ② 양성교육은 확대된 반면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노력이 다소 부족했으며, ③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비롯한 교장/교보재, 기타 교육지원 소요의 제한으로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이 제한되었다.

셋째, 실 사례 분석에서 조선경비사관학교와 ○○연대 훈련 사례는 당시의 교육훈련의 사전 준비성 미흡, 교육보조재료의 지원 여건 불비, 교관의 자질 및 준비성, 리더십 등에 있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에 있어 사전 명확한 목표와 수준의 설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직의 목표와 요망수준은 곧 그 조직이 수행할 교육훈련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둘째, 원활한 교육훈련 수행보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경제적·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국방비와 국방 교육훈련에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셋째, 물리적 전투력과 함께 사상적·이념적·정신적 무장의 우위가 중요하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정신적 무장 상태가 나약하다면 전투력 지수⁴⁷⁾는 형편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 월남전의 교훈을 통해 익히 배운 사례이다. 넷째,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조직 및 규정지원 체계를 비롯,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여 나간다. 실시간의 사회 변화속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위한 장·단기 연수 및 능력개발 교육 형태의 보수

47) 전투력=유형전력(무기, 장비, 병력)×무형전력(정신전력, 운용전력, 기술전력)×교육훈련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장 및 교보재, 기타 교육을 위한 충분한 학습 지원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장 환경 조성에 있으며 이는 과감한 교육훈련 지원 여건이 구비되었을 때 가능하다.

최근 국방부는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할 전투장비 개발과 함께 이를 이용하는 교육훈련 기법도 병행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육군의 KCTC 과학화 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연계한 합성전장훈련체계(LVC: Live Virtual Constructive), CBT(Computer Based Training)에 의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을 비롯, 공군의 GPS를 활용한 공중전투 기동장치(ACMI: 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 합성전장(STOW) 공중전투훈련체계 발전 등의 다양한 훈련 기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훈련기법은 군 교육훈련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훈련기법의 개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시사점을 기초로 국방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실전에 적용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대의 군은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국가 사회발전을 지원해야 하는 이중의 기능적 요구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 인적자원개발이라 할 수 있는 군 교육훈련은 좀 더 큰 관점에서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는 제1, 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전쟁 등 크고 작은 열전과 미·소 간의 냉전으로 얼룩진 역사였다. 현대적 의미의 인적자원개발이 2차 대전 당시 태동된 TWI(Training Within Industry)⁴⁸⁾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⁴⁹⁾은 인적자원개발의 역사 자체가 전

48) 최초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미 전시동원국의 Channing R. Dooley에 의해 연구(1940-1945)된 「기업 내 감독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직무지도기법(Job Instruction), 직무개선기법(Job Method), 인간관계기법(Job Relationship)으로 구성되었으며, 단기간에 감독자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구성됨.

49) Richard A. Swanson & Elton F. Holton, 『Founda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Histo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II, 2001, p. 27.

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군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군 교육훈련 역시 국가적 관심과 지원 영역 속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한반도와 같은 특이한 안보환경과 구조 속에서는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야 한다.⁵⁰⁾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하고 훈련한 대로 싸운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분명하게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설명해주는 말이다. 첨단 미래전에도 과거의 역사적 교훈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투는 과학의 힘으로 하지만 전쟁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제반 시사점과 교훈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강군 육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8. 9. 23, 심사수정일 : 2008. 10. 21, 게재확정일 : 2008. 11. 17)

주제어 : 교육훈련, 건군기, 미군정, 미군사고문단, 양성교육, 보수교육, 부대훈련, 교육보조재료, 환경분석, 체제분석

50) 이희수,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2007, pp. 15-16.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ROKA Training and Education during the Building Period

Kim, Won-dae

It has been almost 60 years since the birth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ROKA) which was a leading force of Korea's modern history. At the time of its birth, the ROKA went through a lot of trial and error in the process of being trained in dependent way under the influence of the Korea Military Advisory Group during period of ruling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However, the ROKA is also being given historical evaluation that it played a decisive role in winning victory during the Korean War.

Through reflection on the military system and the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at the birth of the ROKA, the important implications will be given in terms of clarification of the identity of the ROKA and establishment of futuristic direction for military training and education. This approach is important considering that the ROKA is in active process of escalating itself to stronger world-class army. At this critical juncture, the effort to reflect on the development of the ROKA's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that were implemented during the earlier days of the birth of the ROKA and to learn from shortcomings of the past program is considered very meaningful. In this context, the following approaches are taken through this study.

First, a study on the birth process of the ROKA's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during times of birth of the ROKA and analysis of features of these programs are conducted.

Second, a study on the pattern of the ROKA's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and analysis of features of each pattern are conducted.

Third,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se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to actual filed operation are conducted and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formulated.

Through this study, micro and macro reviews on specific situation which influenced the ROKA'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t the time of the ROKA's birth while also conducting analysis of previous cases within filed operation troops, literature studies, and the review on testimonies of related pers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KA's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that were implemented during cataclysmic days of birth of the ROKA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are as follows.

First, those programs are showing foreign-dependent characteristics.

Second, those programs look like those of the US Forces on the surface but in reality, those were modeled after those of Japanese Army.

Third,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 ROKA was not able to concentrate 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t that time.

Fourth, there has been differentiation and development of those programs based on pattern such as training education, salaried education, and troop training. The reason why the ROKA was not able to concentrate on training and education is that there was failure in setting clear goals of training and education due to vague identity of the ROKA at the time of its birth. The necessity to put down the action of leftists and to prevent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NKPA) from invading the ROK limited the ROKA's ability to implement systematic training and education. Also insufficient support in terms of educational supplements such as educational contents and references worked as obstacle i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raining and education.

The historical lessons about training and education during the Building Period of the ROKA are suggesting how important the clear establishment of

goals, aggressive development and support of a variety of educational supportive means and strong mentality are.

Therefore, there has to be effort to apply the above implications to actual field of education in terms of establishment of training and education development planning in the future.

Key Words : Training and Educa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Building Period of the ROKA, Korea Military Advisors Group, Cultivating Education, Supplementary-Education, Troop's Education, Training & Educational Material, Analysis of Environment, System of Environment